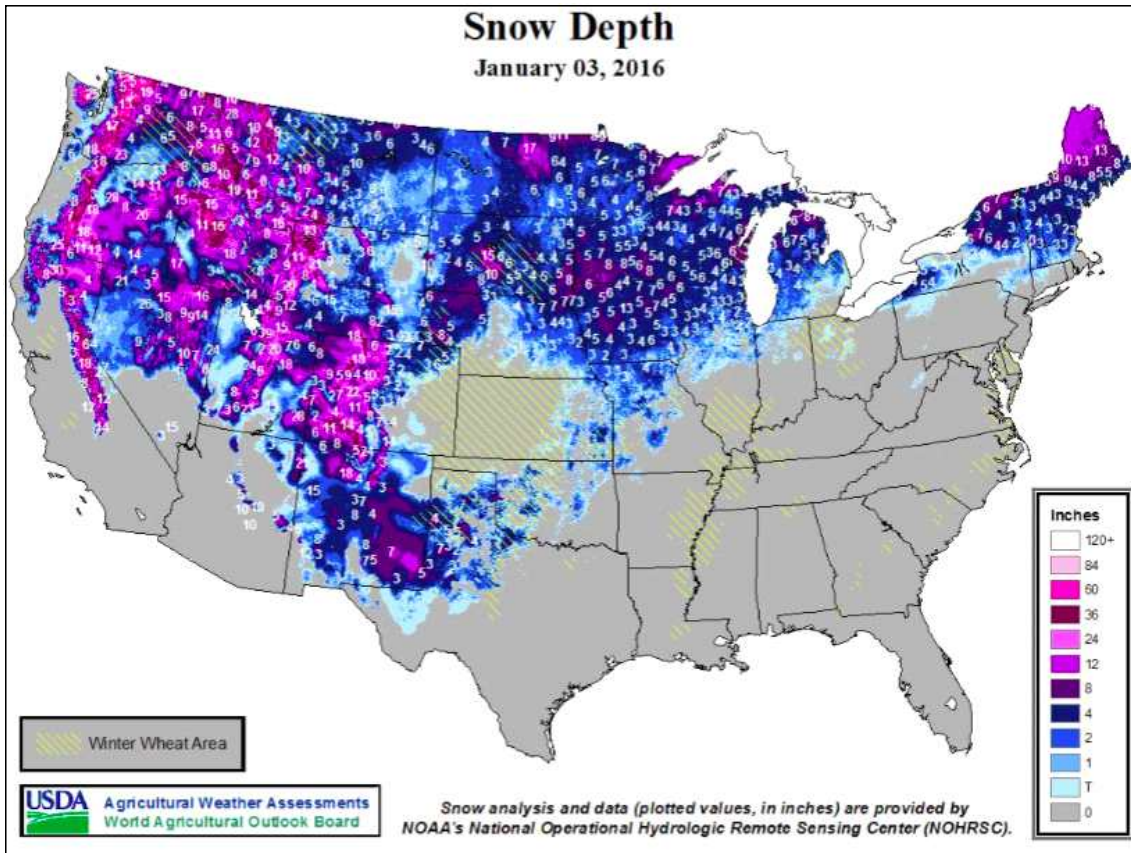


1월 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1)

□ 미국 기후 현황(12/27~1/2)

텍사스 북서부에서부터 중서부 일대에는 주 초반 강한 비가 내렸고, 미시시피 계곡 중부 일대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다. 남동부의 플로리다 서브, 알라버마 남부, 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침수되기도 했다. 애틀랜타 남동부 및 중부 일대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10~20°F 이상 높다. 동부 일대의 따뜻한 날씨와 달리 서부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뒤덮고 있는데, 서부 내륙 산간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최고 20°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남부 대평원 전역에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고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도 했다. 이번 눈으로 가축 피해도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그 밖의 중부 일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밀 재배지 일부에서는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옥수수 재배지 서부와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12월 28일 많은 눈이 내렸다.



## □ 농업 현황 요약(12/28~1/3)

미시시피강 일대의 동부 전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플로리다 전역에서는 평균기온이 70°F 이상 올랐다. 반면,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로키산맥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10°F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전역에서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남부 평원에서부터 미시시피강 계곡 중부 일대 및 남동부에서는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 □ 세계 기후 현황(12/27~1/2)

■ 유럽: 중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따뜻한 날씨를 보였고, 스페인, 이탈리아,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왔다. 지난 주 10~6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일대의 가뭄을 다소 해소해 주었고, 겨울밀과 보리에 충분한 수준을 공급해 주었다. 이탈리아 북부와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 후반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었다. 아일랜드 전역과 영국 서부 등에서는 30~9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15~30mm 내외의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려 농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 서부와 중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5°C 정도 높았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폴란드 등 동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졌다.

■ 구소련(서부):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로 인해 예년처럼 눈이 농경지를 덮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날이 지난 2달 간 이어졌지만, 지난 주 눈과 함께 추위가 찾아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10cm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이번 눈이 농경지를 덮어주어 영하 26°C의 혹한에도 동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러시아 남부에서도 10~25cm의 눈이 내렸고, 눈이 쌓이면서 영하 22°C의 혹한에 의한 동해 피해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했다. 혹한이 찾아오긴 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다.

■ 호주: 퀸즐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등에서는 5~25mm의 비가 내렸고, 여름작물의 생육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동부 일대는 평년보다 1~2°C 정도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덥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겨울작물 수확작업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아르헨티나: 남부와 북서부 일대에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까지 오랐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려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했다. Cordoba 중부와 Santa Fe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Buenos Aires 남부 일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밀과 보리의 수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부의 Santiago del Estero에서는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여름작물 파종 이후 적절한 수준을 공급해 주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30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87%, 78%이며, 밀의 수확률은 75%이다.

■ 브라질: 북동부 내륙지역 일대에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Mato Grosso 북동부 일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Bahia 지역에는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1~3°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Minas Gerais 남동부와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Mato Grosso 남부와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Parana 서부와 Mato Grosso do Sul 남부, 파라과이 동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일부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